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2025년 50주년을 맞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남일 교장이 뉴튼 오크힐 미들스쿨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 한국학교 50주년, 26년 재임한 남일 교장에게 듣는다

“딸과 아들에게 쓸 시간 쪼개 수천명 2세들에게 나눴다”  
50주년 맞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최장수 남일 교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50년, 어린아이가 장년이 되는 시간이다. 50주년을 맞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이제 완숙기에 접어들었다. 50년에 걸쳐 다양한 시대와 장소, 인물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로 담겨 있는 이민 역사의 주요 이정표가 되었다.

미주의 한국학교들은 대부분 70년대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이민 디아스포라 사회가 체계화 된 시기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워싱턴 한국학교(70), 뉴욕 한국학교(73), 실리코밸리 한국학교(74)등에 이어 뉴

**<전체 기사 읽기>**

잉글랜드 한국학교는 75년 창립됐다. 시작은 뉴튼의 커뮤니티센터였다. 뉴튼 루터란 교회, 렉싱턴 성요한 교회, 그리고 렉싱턴 클라크 미들스쿨 등을 전전하다 2000년 지금의 오크힐 미들스쿨에 정착했다. 모든 이전은 타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곳에서 역사의 절반에 달하는 25년째 주말에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돌아보니 여기가 한국학교 >>10면으로 계속

## 매사추세츠 공립 대학생 40% "먹을 것 부족"... 식량 불안정 5년 새 두 배로 급증

생활비 폭등, 대학생 낮은 생활비, SNAP 지원이 학생들 배고픔 키워  
유매스, 락스베리 커뮤니티칼리지 등 캠퍼스푸드 팬트리 이용자 폭증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공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식량 불안정이 지난 5년 새 두 배 이상 치솟으며, 굶주리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스톤비즈니스저널이 25일 보도했다.

그레이트보스톤푸드팬트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사추세츠 공립 대학생의 약 40%가 식량 불안정 상태였다. 2019년 19%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매스애머스트(UMass Amherst)는 Amherst Survival Center와 함께 지난 9월 새로운 학생용 푸드 팬트리를 개설했다.

운영 책임자인 샘 게린 >>12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스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주지에 아플린터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평통 보스톤지역 협의회 제22기 출범식 가져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가 11월 21일 뉴튼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22기 출범식을 행사를 갖고 새로운 지도부와 자문위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을 선언했다. 출범식은 1부 출범식, 2부 평화통일 강연회, 3부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금주 간사가 사회를 맡은 출범식은 브루클라인 소재 사립고교인 베이커 스쿨의 K 팝댄스팀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오후 5시부터 위촉장 전수, 취임사, 축사, 자문위원 선서로 이어졌다.

자문위원 위촉장은 대표로 이강원 회장, 이인영 수석 부회장, 박귀재·피윤경·오은희 부회장 5명에게만 주어졌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회장은 영상 축사에 이어 한문수 21기 회장이 이임사를 전하고 이강원 회장에게 평통기를 건네며 22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강원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자문위원들이 현지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한 “제21기의 성과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차세대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공공외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수 민주부의장을 비롯해 김재휘 보스톤 총영사, 남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수 민주부의장은 “22기 출범은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동포사회의 또 한번의 도약”이라며 “보스톤협의회가 한인 사회의 단합과 차세대 참여를 이끌며 평화통일 공감 확산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한문수 회장, 오은희 간사 그리고 21기의 노고를 치하하고 “22기 협의회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목표에 맞추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실 것으로 믿는다”며 총영사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남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도 전임 한문수 회장과 위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남 교장은 “한국어·역사·문화 교육을 통해 2세들의 정체성을 키우는 일은 동포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이며 평화통일의 가치 또한 이들을 통해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재휘 총영사는 축사와 더불어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총영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외교·안보·군사·경제 전 분야에서 복합적 긴장이 형성된 상황임을 설명하며, 미·중 경쟁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남북관계 정치 상태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인·북핵 문제 해결·남북관계 개선·지속 가능한 평화 구조 구축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지난 9



월 유엔 총회에서 발표된 ENG 매니징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이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 (Normalization), 비 핵 화 (Denuclearization)의 세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평통의 역할을 언급하며, “보스톤협의회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공으로서 동포 사회뿐 아니라 미국 내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새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며 차세대의 적극적 참여도 요청했다.

제 22기 평통 보스톤협의회자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상열, 김성혁, 김순호, 김예지, 김우혁, 김정기, 명성진, 박귀제, 박민지, 박은지, 박진영, 박찬모, 서영애, 서종욱, 송수곤, 안병학, 안세

용, 오은희, 유영복, 유현경, 이강원, 이금주, 이길자, 이무선, 이석원, 이시원, 이인영, 이재교, 이정연, 이한나, 이호은, 임국희, 전성현, 전승희, 정민철, 조미나, 조은구, 지상욱, 최서균, 최지원, 피윤경, 한문수, 한선우, 한순용, 한지호, 함혜란, 함혜옥, 허훈, 홍진섭, 황규령 (총 50명)

### 제22기 평통 보스톤협의회 임원진

회장: 이강원, 간사: 이금주  
수석부회장: 이인영, 부회장: 박귀재·피윤경·오은희, 감사: 명성진

공공외교 분과위원장: 전승희, 여성분과 위원장: 함혜옥, 청년 분과위원장: 이재교, 기획 홍보 분과위원장: 박찬모, 대외협력 분과위원장: 안세용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세계 No.1 동삼보인삼

###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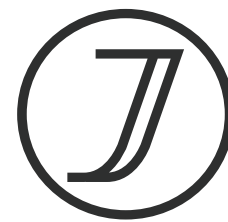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을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항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별첨된 링크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 힐리 주지사, 23억 달러 규모 FY2025 추가 예산안 서명

### 생활비 부담 완화, 공립대생 파이낸셜에이드 확대 가짜 ICE 사칭 범죄화, 연방정부 섣다운 피해자 보호 조치도 포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가 25일 생활비 부담 완화, 백신·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2025회계연도 23억 달러 규모 마무리 추가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번 예산에는 무상 학교급식(universal school meals), 공립대학생 재정보조(Financial Aid) 확대, 공공병원과 취약 의료기관 지원 등 생활 안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힐리 주지사는 최근 연방 차원의 백신 정책 불안정성에 대응해 주 보건부(DPH)가 독자적으로 예방접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아동백신 프로그램 역시 연방정부의 권고와 무관하게 주정부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공보건 병원, 연방 지원 축소 위협에 놓인 낙태 제공 기관, 그리고 변경된 연방 '메디케이드(Medicaid) 근로 요건'에 대응하기 위한 매스헬스(MassHealth) 회원 대상 정보 캠페인 예산도 포함됐다.

공공안전 분야에서도 변화가 크다. 예산안은 연방 공무원 사칭(특히 ICE 요원 사칭)을 신규 범죄로 규정

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순직 또는 중대 부상을 입은 주경찰(State Police) 요원들이 정년 도달 전까지 전액 연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통과됐다.

힐리 주지사는 연방정부 섣다운으로 피해를 입은 연방 공무원들을 위해 퇴거·압류 중단 모라토리엄에 서명했고, 이를 내년 1월 26일까지 75일간 추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리디아 에드워즈 상원의원이 제안한 내용이다.

힐리 주지사는 “이번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에 집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높이고 주정부 지원금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매사추세츠는 균형 있는 예산으로 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스튜어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미지급금 해소, 매스헬스 운영비 16억 7천만 달러(연방 보전 감안 시 실비용 3억 300만 달러) 등의료 분야 재정 안정화 대책도 포함한다.

또한 헬스케어포올(Health Care For All)의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정

책 변화 정보 캠페인 1,000만 달러 라이프사이언스센터(Life Sciences Center) 연구·혁신 투자(LSI 3.0) 1,000만 달러 2026 월드컵 관련 비

주 전역의 학교를 지원하는 'Student Opportunity Act'를 위해 공정 분담금(Fair Share) 초과분 1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FY26 공립 고등교육 학생 재정보조와 스티펜드에도 1천830만 달러가 투자된다.

예산안에는 힐리 주지사가 제안한 75년 이상 된 주 운영 기관 기록의 공개 규정 개정도 포함되었다. 이는 주립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 연구자들이 역사 기록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반영했다.

- 기타 주요 예산 항목**
- 6,070만 달러 제설·제빙(snow & ice) 대응
  - 5,000만 달러 주택 유지·안정화
  - 1,850만 달러 공공보건 병원 운영
  - 1,830만 달러 공립 고등교육 Financial aid
  - 1,400만 달러 웨스턴매사추세츠 '섹션 35' 치료 서비스
  - 1,200만 달러 무상 학교급식
  - 1,000만 달러 SNAP 변경 대응 위한 DTA 운영 지원
  - 1,000만 달러 메디케이드·백신 정

용 720만 달러 교정국(DOC) 운영비 500만 달러 연방 지원 축소 위협에 놓인 생식건강(낙태) 제공기관 지원 hsb@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 공립 대학생 40% "먹을 것 부족"... 식량 불안정 5년 새 두 배로 급증

▶▶1면에 이어서  
은 “2018년 300명 수준이던 학생 이용자가 최근에는 1,500명에서 1,700명까지 늘었다”며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계린은 특히 높은 생활비와 대학원생 스티펜드의 구조적 낮은 수준이 식량 불안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템플대 Hope Center의 전국 조사에서도 학생들의 기본 생계 위기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미국대 학생의 41%가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48%는 주거 불안정을, 그리고 14%는 흡리스 경험을 하고 있다.

락스베리 커뮤니티 칼리지(RCC)의 캠퍼스 푸드팬트리 ‘

락스박스(Rox Box)’ 역시 시장은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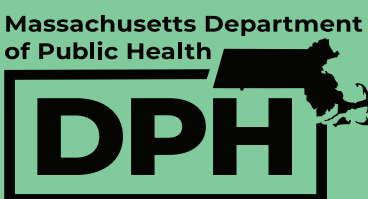
2023년 문을 연 뒤 수요가 폭증하면서 최근 냉장 보관이 가능한 락커 3개를 추가 설치했다. 모든 운영 비용은 지역사회 기부로 충당되고 있으며, 팬트리 채우는 데만 1만 2,500달러가 든다.

팬트리 코디네이터이자 RCC 졸업생인 키아라 로사리오에 따르면, 지난 5월 600명 수준이던 이용자가 최근 1,000명을 넘었다. 목요일만 해도 80~90명의 학생이 직접 팬트리에 방문한다.

로사리오는 현재 SNAP(푸드 스탬프) 지원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면서 팬트리를 찾는 학생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s://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NOV. 28th - DEC. 4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LETTUCE WRAP

From marinated pork to marinated beef, lettuce wrap goodness will sweep you off your feet! Make yours with H Mart's fresh ingredients! H 마트 양념육으로 완성되는 한 쌈의 행복! 신선한 재료로 더욱 맛있게 즐겨보세요!



<b>Korean Hot Pepper</b> 청양 고추 LB <b>\$3.99</b>	<b>Blueberry</b> 블루베리 1 PINT/PKG <b>\$3.99</b>	<b>Yu Choy Tip</b> 하루나 팁 LB <b>\$1.99</b>	<b>Hachiya Persimmon</b> 연시 BOX <b>\$24.99</b>	<b>Shanghai Choy</b> 청경채 LB <b>\$1.29</b>	<b>Korean Pear</b> 한국산 배 PRODUCT OF KOREA 9-11 CNT/BOX <b>\$29.99</b>	<b>Korean Radish/Napa Cabbage</b> 한국 무/배추 BOX <b>\$14.99</b>
<b>Mandarin</b> 만다린 3 LB/BAG <b>\$4.99</b>	<b>Small Mustard Green</b> 작은 머스타드 그린 LB <b>\$1.29</b>	<b>Premium Fuji Apple</b> 프리미엄 후지사과 LB <b>\$0.99</b>	<b>Dragon Fruit</b> White Flesh 용과 LB <b>\$2.49</b>	<b>Big Green Onion</b> 대파 BUN <b>\$1.99</b>	<b>Pomegranate</b> 석류 LB <b>\$2.99</b>	<b>ZESPRI SunGold Kiwi</b> 제스프리 골드 키위 2 LB/PKG <b>\$9.99</b>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SPEND \$60 AND MORE  
LIMIT 2 BOX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Fresh Beef Top Blade Steak</b>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9.99</b>	<b>Fresh Beef Short Ribs</b> 생 소 LA 갈비 LA STYLE/LB <b>\$16.99</b>
<b>Fresh Pork Single Belly for BBQ</b> 생 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SLICED/LB <b>\$6.99</b>	<b>Fresh Chicken Tenderloin</b> 생 닭안심 LB <b>\$3.99</b>
<b>Marinated Beef Ribeye Bulgogi</b> 양념 소불고기 LB <b>\$8.99</b>	<b>Frozen Smoked Duck</b> 냉동 훈제오리 SLICED/LB <b>\$19.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Fresh Salmon Steak</b> 연어 스테이크 LB <b>\$7.99</b>	<b>Live Abalone from Wando</b> 완도산 활전복 PRODUCT OF KOREA/EA <b>\$3.99</b>
<b>Frozen Chilean Seabass Steak</b>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b>\$23.99</b>	<b>Frozen King Crab Clusters</b> 킹크랩 다리 300-400'S/LB <b>\$19.99</b>
<b>TONGTONGBAY Frozen Yellow Croaker</b> 통통배 참조기 300-400'S/LB <b>\$5.99</b>	<b>Head-on Shrimp</b> 머리새우 20-30'S LB <b>\$5.99</b>

### SMART CARD MEMBER ONLY

<b>NONGSHIM Spicy Vegetable Noodle Soup</b> 농심 무파마 탕면 4.3 OZ X 4 EA/PKG <b>\$5.99</b>	<b>NONGSHIM Nongshim Ramyun</b> 농심 농심라면 4.37 OZ X 4 EA/PKG <b>\$5.99</b>
<b>DR.CHUNG'S FOOD Plain Vegemil Soymilk A</b> 정식품 담백한 베지밀 A 6.42 FL OZ X 24 EA/PKG <b>\$13.99</b>	<b>DR.CHUNG'S FOOD Sweet Vegemil Soymilk B</b> 정식품 달콤한 베지밀 B 6.42 FL OZ X 24 EA/PKG <b>\$13.99</b>

<b>HAIO Premium Roasted Seaweed Value Pack</b> 해오름 혼합 도시락김 0.15 OZ X 16 EA/PKG <b>\$5.99</b>	<b>CHUNG JU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b> 청정원 오프드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6.6 LB <b>\$14.99</b>	<b>JINGA Beef Bone Flavored Soup</b>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b>\$10.99</b>	<b>PULMUONE Rose Topokki</b> 풀무원 로제 떡볶이 14.8 OZ <b>\$4.99</b>	<b>PULMUONE Soupy Topokki</b> 풀무원 국물떡볶이 SPICY 14.9 OZ <b>\$4.99</b>
<b>Ihdam Namwon Mudfish Soup</b> 이호담 남원추어탕 15.87 OZ <b>\$5.99</b>	<b>DAERIM SEON SAJO Seafood Ball</b> 대림선 사조 해물동그랑땡 2.2 LB <b>\$5.99</b>	<b>HAIOREUM Dumpling Wrapper</b> 해오름 만두피 14 OZ FOR <b>2\$3.99</b>	<b>SAMYANG Pop Corn Snack</b> 삼양 사또밥 2.36 OZ FOR <b>3\$5</b>	<b>SAMYANG Chang Gu Honey Crunch Snack</b> 삼양 짱구 4.06 OZ FOR <b>3\$5</b>
<b>CLASSIC Rice Cookie</b> 클래식 쌀쿠키 SESAME 10.58 OZ <b>\$4.99</b>	<b>ITOEN Oi Ocha Unsweetend Green Tea</b> 이토엔 오이오차 녹차 67.6 FL OZ FOR <b>2\$9</b>	<b>Red Press Container</b> 황토 누름이 김치통 2.7 L \$10.99 9.5 L \$23.99 <b>\$5.99</b>	<b>DONG HWA Each Toothpaste for Gum Strengthening</b> 동화약품 잇치 치약 \$9.99 4.23 OZ EA <b>\$7.49</b>	<b>KOTO Premium Stainless Steel Shabu Shabu Single Pot</b> 코토 프리미엄 스텐 샤브샤브 싱글 팻 4.5 L \$25.99 5 L \$27.99 <b>\$19.99</b>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 김치!**

**JONGGA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 '전국 최고 보험 가입률'의 역설...매사추세츠 의료비 부채 12퍼센트 넘어

##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강보험 가입률을 자랑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 보건정보분석센터(CHIA)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 주민의 12퍼센트가 넘는 이들이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8명 중 1명 꼴로 '병원비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비 부채를 진 주민 대부분은 빚이 생기기 시작했을 당시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그러나 공제액(deductible)이 높은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결국 큰 부담으로 이어졌다. 로런 피터스 CHIA 국장은 "거의 전 주민이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일 수 있지만, 주민 12퍼센트 이상이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지는 상황이라면 이는 공허한 성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방 정책 변화가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새 자격 기준과 근로 요건이 도입되면서 매사추세츠 메디케어 프로그램인 매스헬스(MassHealth) 가입자 최대 3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연말로 예정된 ACA(오바마케어) 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만료되면 개인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진다.

보고서는 의료비 부채가 건강관리 기피, 식료품·주거비 지출 압박 등 광범위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방 빈곤선 대비 139퍼센트에서 500퍼센트 수준의 가구(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약 3만9천 달러에서 13만9천 달러), 그리고 흑인 주민들은 2천 달러 이상의 의료부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보험에서 벗어났던 시기가 있는 경우 의료부채 비율은 거의 두 배로 뛰었다.

보험을 끊김 없이 유지했다고 해서 부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디덕터블 부담(72퍼센트), 높은 코페이(65퍼센트), 보험 미적용 진료(53퍼센트) 등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주머니를 압박하고 있었다.

비영리단체 '헬스케어 포 올'의 애슐리 블랙번 대표 대행은 "저소득·중간소득 가정과 흑인 주민들은 2천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지닐 확률이 훨씬 높고, 이를 갚는데도 더 오래 걸린다"며 "다가오는 연방 지원 축소로 부채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사추세츠 건강보험플랜협회 로라 펠레그리니 회장은 병원 및 의료 시스템의 높은 가격, 약가 상승, 복잡한 청구 체계 등이 부채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ACA 세금 크레딧 확대 조치가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무반응 속에 연말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종료될 경우 수백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두 배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4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촉발한 핵심 요인이기도 했다.

보스톤대 공중보건대학 앨런 셰이거 교수는 "만약 의회와 대통령이 확대 세금 크레딧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보고서에 담긴 문제는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Medicaid 축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확대 세금 크레딧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김유림 Yulim Kim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들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혹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co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계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lshou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송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rimso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yun@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폴리진  
978.454.2043  
lshoung@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파크  
617.447.055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유  
617.780.7833  
peter.y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헤  
978.866.3248  
jhe@bostonpremierrealty.com



여현유  
401.535.3387  
yehyun.yu@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yu@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강수준  
617.838.8973  
kangsojun@bostonpremierrealty.com



파크 송  
213.563.0997  
parksun@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헤  
413.507.1402  
mikihe@bostonpremierrealty.com



선재현  
617.913.3589  
sunjaehyeon@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17.877.9387  
heonjun@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ayoung.kim@bostonpremierrealty.com



곽숙  
781.898.1214  
kwaksuk@bostonpremierrealty.com



지한 김  
617.510.1182  
jihankim@bostonpremierrealty.com



이곤 김  
617.843.8723  
egonkim@bostonpremierrealty.com



헤곤 기  
601.611.0182  
heongwi@bostonpremierrealty.com



Tommy Woolfolk  
617.274.5610  
tommywoolfolk@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98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2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Mian Yu  
617.933.2713  
m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7.8979  
xian.dole@bostonpremierrealty.com



Lu Jang  
248.418.0117  
lujia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638.9602  
johntra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23.1038  
rebeccaphu@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508.873.8076  
michael.somm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t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3.28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wang@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38.8285  
crystalwei@bostonpremierrealty.com



반문희 박  
291.448.8589  
hwanmunhe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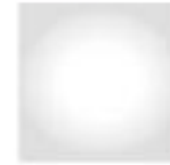
재이그 김  
781.596.0409  
reagr.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0434  
isungjin@bostonpremierrealty.com



Nini Bolanger  
413.237.1886  
nini@bostonpremierrealty.com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 개최

## 재외동포 2세 교육 50년, "새로운 50년 향한 출발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박선영)는 11월 22일 학교 강당에서 내외 귀빈과 학부모,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5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의 시간' 과 2부 '축하의 시간' 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박현아 리더 교부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이어진 2부 축하 순서는 고급-1 금강반에 재학 중인 장건·최정인 학생의 공동 사회와 재학생들이 준비한 축하 공연으로 꾸며졌다. 두 사회자는 큰 행사임에도 매 순서마다 개성과 재치가 넘치는 설명을 곁들이고, 마지막에는 서로를 격려하는 성숙한 모습까지 보여주어 참석자들로부터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 가는 2세들의 모습"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교 50주년 기념식은 40주년 당시 '박물관 개관 행사' 와는 달리 '감사와 축하' 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순서인 국민의례에서는 기초1과정 해남반에 재학 중인 현준머스맨(4세) 어린이가 애국가를 제창했고, 이어 고급과정의 이호준 학생이 트럼펫 독주로 미국 국가를 연주해 큰 박수를 받으며 축하 행사의 문을 열었다.

남일 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975년 '동포2세 교육' 이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어느덧 50년의 역사를 맞이했다. 그동안 선생님과 학부모회와 이사회는 물론 많은 보조교사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로 지금의

우리 학교가 굳건히 잘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한다" 고 말하고 "2세들이 글로벌 리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다" 고 다짐했다. 또한 기념식에 참석한 귀빈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총영사는 축사에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지난 50년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동포 교육기관으로서 언어·역사·문화교육을 통해 한인 사회를 잇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왔다. 지역 동포사회도 학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이 한인 2세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미 주류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 감사를 표했다.

김총영사는 또 "삼일절 행사, 독도 행사, 작문·노래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높게 평가되며 이에 오늘 대통령표창을 드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축사에 앞서 김재휘 총영사는 이어 남일 교장에서 대통령 표창장을 전수하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기에 수치를 직접 달아 5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장과 이강원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날로 높아가고 있는 한국의 음식문화는 물론 다양한 K-콘텐츠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퍼지고 있다. 요즘 많은 미국 주요 식당에서 '김치' 는 물론 '김밥과 불고기' 가 주요 메뉴로 등장하고 있음은 물론 미국 프로 야구, 축구에서

### 〈전체 기사 읽기〉

도 한국 선수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고 말하고 "앞으로 곧 여러분 중에 '최초의 주지사,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 최초의 미국 대통령' 이 여러분 중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며 50주년 축하 인사를 대신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후원단체를 대표해 김재휘 총영사,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 회장, 이강원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장,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대표에게 감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김은한·김기석 전 이사장, 박선영·윤미아 이사사와 이현경·김영순·이영미·박원경·남선경·김은아·이성희·이승현·황은하·최보경 교사 등 전임 교사들에게도 감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현직 교사 중에는 주민정·유미선·정성렬·김희현·박현아·김정자·이현석 교사가 15년 이상 근속해 근속감사 표창장을 받았고, 학부모회에서는 임선희·김효정·양원미·나희영 등 역대 학부모회장이 표창을 받았다. 1부 마지막 순서에는 장휘 학생이 〈반세기기를 이어 온 한글의 빛〉 이란 제목의 축시를 낭독하며 마무리됐다.

2부 '축하공연' 은 장건·최정인 학생의 사회로 시작됐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합창단(지도 양수연·김현정)이 '우리 한글' 합창으로 무대를 열었고, 지난해 '번역시 낭송 대회' 에서 대상을 수상한 오유택(「겨울」-시인 이상), 나연재(「공부」-시인 김사인) 학생이 번역시 낭송을 선보였다. 이어 2024년 '꿈을 그린 노래대회' 에서 대상을 받은 정지안(「꿈을 꾸는 어린이」)



학생이 축하 무대를 꾸몄다. 학생들은 "연습을 많이 해서 목이 다 쉬 정도였다" 고 말했지만, 정작 무대에서는 찬사를 받으며 발표를 마쳤다.

발표 순서의 마지막은 12학년 차세대 한예린 교사가 장식했다. 한예린 교사는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를 한국의 유명 가수 못지않은 실력과 목소리로 열창해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날 2부의 마지막 순서로는 '개교 50주년 기념' 7행시 짓기 대회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교사 부문에서는 조은정(우수 창작상), 류민희(우수 서사상), 김희현(우수 올림상) 교사가 수상했고, 보조교사 부문에서는 이준호(우수 창작상), 이유진(우수 서사상), 백종우·이동인(우수

올림상) 학생이 각각 상을 받았다. 학부모 부문에서는 석원엽(우수 창작상), 이준(우수 서사상), 이에정(우수 올림상)씨가 수상했으며, 전체 대상은 학부모 부문에서 출전한 노한나 학부모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차지했다.

기념식 후 다과회에서는 정성렬 서예반 교사가 직접 붓글씨를 쓴 부채를 린다 챔피언 회장과 이강원 회장에게 선물했다.

학교 측은 내년 1월 24일 개최되는 설날 행사에서 전교생에게 개교 50주년 기념품인 가방과 기념컵을 선물로 전달한 뒤, 일련의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NOV. 27<sup>TH</sup> - DEC. 4<sup>TH</sup>, 2025



JINGA

Rice Cake Soup  
[Tteokguk]

진가 쌀떡국

~~\$16.99~~

LIMIT 2

**\$11.99**

5.74 OZ X 6 CUPS/BOX



SUHYUP

Marinated Crab

수협 간장/양념게장

SOY SAUCE/SPICY (2.86 LB)

~~\$24.99~~

LIMIT 3

**\$15.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한국학교 50주년, 26년 재임, 남일 교장에게 듣는다

▶▶1면에 이어서

의 정착기였다는 의미다.

남일 5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은 오크힐 미들스쿨에 정착하기 한 해전인 1999년에 취임했다. 4대 황성미 교장에 이어 26년째 모든 풍파를 거치며 한국학교를 지켜왔다. 남일 교장 시대라 할 수 있는 오크힐 미들스쿨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던 시기다.

한 때 한국학교가 미국 한인 부모들에게 선택사항이었다면, 2000년대 접어들며 필수적 이중언어 교육의 장이 됐다. 한인 이민자 수의 증가와 부모들의 인식 변화는 등록학생 500여명, 교사 70여명 그리고 40이 넘는 학급수까지 대형 학교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지금은K-문화로 인해 한인 2세 들뿐만 아니라 타 민족, 타 문화 학생들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는 확장기에 놓여 있다.

외부환경적 요인은 분명히 순풍이었지만 한국학교는 스스로 성장하지 않았다. 한국학교의 50주년이란 화려한 조명의 뒤에는 많은 헌신이 손들어 있다. 그중 26년간 최장기 교장직을 맡아 성장을 이끈 남일 교장은 가장 드러난 조명 뒤 그늘이었다. 늘 한국학교, 2세 학생들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22일 한국학교 기념식에서 80명의 교사들이 서명을 모아 선물과 공로패를 전달한 것은 그의 역할에 대한 상징적 조명이었다. 한국학교 성장기의 주역이자 오크힐 미들스쿨 시대의 산 증인 남일 교장. 50주년에는 그의 이야기를 들여보지 않을 수 없다.

1975년 9월 설립된 한국학교가 50살이 됐는데, 한국학교로서 50주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남 교장: 우리 학교의 50주년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포 사회가 그 반세기 동안 꾸준히 한글과 문화를 지켜온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 긴 반세기 동안 수많은 분들의 손길과 헌신이 모여서 한국학교라는 공간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50주년은 여기까지 정말 손에 손을 잡고 역경을 헤치고 함께 걸어온 그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이자, 앞으로 또 더 잘해야 한다는 조용한 다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다.

1999년 취임 이후 올해로 26년째이신데, 가장 오래 재직하신 교장으로서 50주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남 교장: 다른 분들한테도 50년이 굉장히 큰 의미이겠지만 저한테는 이 50주년은 참 특별한 시간이다. 돌아보면 학교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의 반 이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항상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하나님이 저한테는 24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48시간을 주셨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하곤 했다. 그만큼 시간을 아껴써야 했다.

한국학교에 많이 신경을 쓰고 준비도 해야 됐다... 그래서 가장 미안한 건 사실 저희 아이들, 딸과 아들이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도 그 시간을 그 마음들을 수 천 명의 다른 2세대를 위해서 같이 나누었던 것 같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

한국학교 운영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남 교장: 두가지다. 우리 학교는 계속 임대를 하다 보니까 매년 렌트비

가 올라가고 사용 조건이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이 늘 마음에 남아 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면 교육의 질을 지키면서도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유능한 교사를 발굴하고 교육시키는 일이었다. 한 교사가 다음 세대에 그 선생님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를 늘 생각해야 했다. 교사를 채용할 때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 때로는 현실이 앞서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었다.

한국학교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남 교장: 누가 물어봐도 100번이면 100번 다 선생님이라고 먼저 얘기를 한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같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나가는 그러한 협력관계에서 나오는 그게 바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한국학교는 2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국학교는 당연히 한국학교이기 때문에 한글 교육, 역사·문화 교육이 바탕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2세들에게 정체성을 굳건하게 해주는, 그리고 그들의 뿌리를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란 다문화 환경에서 자라는 2세 아이들에게 한국어나 한국 문화는 단순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반을 한국학교에서 알을 키워주고,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국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국학교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중요한 것은 교사 양성 시스템이다. 좀 더 보편화된 교사 양성 시스템을 선생님들이 거쳐서 이 세대를 가르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특히 기술발전에 맞춰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있어야 된다.

시대에 맞춰 디지털 교재나 온라인 콘텐츠 개발하면 교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50주년 행사에서 여러 인사들이 ‘건물 구입’을 강조했는데, 오랜 경험과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교장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가?

한국학교의 건물을 마련하는 현실적인 장벽은 아마어마하다고 본다.

현재의 학급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실만 40개는 있어야 하고, 강당도 50~70명 규모, 카페테리아, 체

육관도 구비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천만 달러로도 어렵고 2천만 달러 정도이 규모가 모여야 한다. 그 외에 교육이 아닌 관리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할 수 있다. 필요성은 인정하되 서두르지 말고 현실적인 기반부터 천천히 마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일단 학교 사무실부터 먼저 구해놓고, 선생님들이 자료 열람하고 모여서 미팅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소박한 실질적인 꿈을 꾸 본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이 늘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표창을 늘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2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져서 린다 챔피언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최초의 한인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졸업생 중에서 그런 인물이 나온다면 정말 좋겠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출신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초석을 맡고 싶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617.742.7707**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연방정부, 간호학 '전문직 학위'에서 제외... 간호 대학원생 대출 한도 대폭 축소

### 매사추세츠 간호계, 인력 파이프라인 무너진다 강한 우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연방 정부가 소셜워크, 교육 등과 더불어 간호학을 더 이상 '전문직 학위(professional degree)'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미국 간호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 한도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고급간호교육 과정이 대부분 수천만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학업 지속 능력은 물론 미래 간호 인력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교육부는 새로운 학위 분류 기준에서 간호학을 전문직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간호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연방대출 한도는 기존 5만 달러에서 2만 500달러로 줄었다. 전체 대학원 과정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간호학 전공생 13만 6천여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보스톤칼리지(BC) 콘넬 간호대학의 캐서린 그레고리 학장은 "3년 과정의 마취전문간호사(CRNA) 프로그램은 20만 달러가 넘게 드는 과정인데 연방대출이 2만 달러 수준이라면 한 학기 비용도 못 낸다"며 "지원금이 없다면 상당수 학생이 학업을 중도 포기할 위험에 놓인다"고 말했다.

"간호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 ... 현장도 비상

이번 대출 축소 결정은 이미 악화일로에 있는 간호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전체 기사 읽기〉

크다. 2025년 매사추세츠 간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인력부족으로 면허가 위태롭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약 33%가 빨리 퇴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 폭력과 학대 경험이 70%에 달한다.

그레고리 학장은 "1명이라도 더 대학원에 들어와야 2년 뒤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간호사가 나온다"며 "대출 문이 닫히면 이 파이프라인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간호사들이 학자금 탕감을 위해 농촌과 저소득 지역 등의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데, 이번 조치가 이 구조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공백이 큰 지역일수록 간호대학원 교육을 받은 인력이 절실하지만, 대출 축소로 해당 인력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 학위 목록에서 제외된 분야는 간호학뿐이 아니다. 사회복지, 물리치료, 교육, 회계 등 일부 분야도 전문직 범위에서 빠지면 대출 혜택이 줄어들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U 합혜옥 교수는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막는 이번 조치는 대학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보이며 대학 및 학생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ditor@bostonkorea.com

# MGB1차 진료의들 또 베이스이스라엘로 이동

### MGB 1차 진료의 대기환자 1만 5천명에 달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

〈전체 기사 읽기〉

사추세츠 최대 병원인 매스 제너럴 브리검(MGB) 소속의 1차 진료 의사들이 과도한 진료 업무와 낮은 임금·복지를 이유로 경쟁 병원인 베이스이스라엘레이히헬스(BILH)로 이동하고 있다.

보스톤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메드포드의 MGB 1차 진료 의사 5명과 간호사 1명이 내년 1월부터 같은 도시의 베이스이스라엘 클리닉에서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로써 지난 1년 사이 MGB에서 BILH로 옮긴 1차 진료 제공자는 최소 18명에 달한다.

MGB 내부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1차 진료 의사들이 임금과 복지, 과도한 환자 수, 낮은 지원 인력 수준, 진료 방식 결정권 부족 등을 이유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다. 이들은 브리검 여성병원과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지난 5월에는 노조 결성에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MGB는 불만을 인정하며 향후 5년간 4억 달러를 투자해 1차 진료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쟁 병원인 BILH에게는 인력을 스카우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BILH는 새로 합류하는 의사들을 맞이 위해 기존 진료소를 확장 이전하고 환자에게 안내까지 시작했다. 떠나는 MGB의 의사들이 담당하던 환자만 약 8천 명에 달해 향후 전문 진료 수요도 자연스럽게 BILH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MGB는 이들 의사들이 전체 1차 진료 제공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진료, 인근 MGB 내과 진료소 전환 등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MGB 내에는 배정된 1차 진료 의사가 없어 수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환자 1만 5천 명

이 존재한다.

두 병원의 경쟁은 여러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023년 BILH가 다나파버 암연구소와 손잡고 17억 달러 규모의 독립암 전문병원 건립을 발표한 뒤, MGB는 자체 암센터 설립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1차 진료 의사 이동까지 이어지면서 경쟁은 일상 진료 현장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베이스이스라엘 최고경영자 케빈 탭은 최근 보건정책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 3년간 1차 진료 인력이 30퍼센트 증가했다며 공격적 영입 전략을 과시했다. 반면 MGB 내부에서는 컨시어지 의료로 전향하거나 은퇴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MGB 의사들은 AI 기반 진료 보조 앱 '케어 커넥트(Care Connect)' 출시가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눈가림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브리검 소속 조이 쯙(Zoe Tseng) 박사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하다. 합리적인 환자 수, 적절한 임금, 병가 같은 기본적인 복지, 그리고 진료 방식에 대한 발언권"이라며 "핵심은 기존 의사를 붙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역에서 1차 진료 의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지만 매사추세츠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환자는 의사를 찾기 어려워지고, 의사들은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에 지쳐가며, 노령화된 진료 인력은 빠르게 은퇴하고 있다. 신규 의사를 배출할 의료 교육 시스템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MGB와 BILH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1차 진료 인력 부족은 앞으로도 많은 MA 주민들의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 보스턴 지역 주택가격 10월에도 상승... 6개월 연속 거래량 늘어

지역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침체에서 서서히 풀리는 조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그레이터보스턴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10월에도 증가세를 보이며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 3년동안 바닥 수준에 머물며 거의 얼어붙다 시피 했던 보스톤 지역의 주택 시장이 회복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터보스턴부동산중개인협회(GBAR)의 발표에 따르면, 보스톤 인근 6개 지역 단독주택 거래가 전년 동월 대비 6.3퍼센트 증가해, 지난해 10월 887건에서 올해 10월 943건으로 늘었다.

신규 등록 매물과 시장에 남아 있는 전체 재고매물(active inventory)도 모두 증가했다. 신규 매물은 전년보다 2.7퍼센트, 전체 매물은 18.5퍼센트 늘어 공급 확대 흐름을 보였다.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 GBAR에 따르면 10월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90만 달러로 전년보다 5.9퍼센트 올랐다.

GBAR는 이러한 흐름이 “그레이터보스턴에 살고자 하는 강력한 수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도 어느 시점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거래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다.

GBAR 회장이자 리딩의 프리미어리얼티그룹 대표인 마크 트리글리오니는 “지금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혼란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보스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보스톤의 의료, 교육, 과학이라는 세 개의 축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2025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다소 내려오면서 거래가 늘기 시작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 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26퍼센트로, 2023년 10월 정점(7.79퍼센트)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전체 기사 읽기>**

2020~2021년 평균 금리의 두 배 수준이어서 부담은 여전하다.

이지울과 주택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중산층조차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90만 달러짜리 주택을 20퍼센트 다운 후 30년 고정 6.26퍼센트 금리로 구매할 경우 월 상환액은 4,400달러(재산세, 주택보험 등 제외)가 넘는다. 같은 집을 2021년 금리로 구매했다면 월 상환액은 약 3,000달러 수준이었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일부 구매 및 매도자들이 금리 하락을 기다리다 지쳐 결국 시장에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특히 성장하는 가족 등 주거 확장이 필요한 경우, 금리가 조금만 내려도 움직임이 더 빨라진다. 10월 연속 금리 인하가 있었고 추가 인하도 예정되어 있어 이 흐름에 힘을 더하고 있다. 연방 기준 금리 인하가 곧바로 모기지 금리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추세는 비슷하게 움직인다.

부동산 통계업체 더워렌그룹 자료에 따르면 10월 매사추세츠 전체 단독주택 거래량은 4,160건으로, 지난해보다 5.4퍼센트 늘었다.

더워렌그룹 캐시디 노턴 부편집장은 “10월 시장은 올해 9개월 내내 이어진 흐름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중간가격과 거래량이 전년 대비 소폭씩 꾸준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금리 인하, 증가한 매물, 연말 접근 등 여러 요인이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sb@bostonkorea.com



## 패트리어츠, 부상 속에서도 신시내티에 26-20 승...9연승 질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벵갈스를 26-20으로 꺾으며 9연승을 이어갔다. 드레이크 메이는 경기 초반 흔들리며 첫 인터셉션 리턴 터치다운을 허용해 0-10으로 끌려갔지만, 이후 흐름을 되찾으며 반전을 만들어냈다.

메이는 두번째 쿼터에 헨터 헨리에게 28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을 살렸고, 직후 마커스 존스가 조 플라코의 패스를 가로채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해 단숨에 14-10 역전에 성공했다. 존스의 이번 플레이는 올 시즌 팀의 첫 픽식스(pick-six)였다.

전반을 17-13으로 마친 패트리어츠는 후반 들어 여러 차례 1야드 라인까지 갔지만 러싱 공격이 막히며 추가 터치다운에 실패했다. 그 사이 루키 레프트 태클 윌 캠벨이 무릎 부상으로, 레프트가

**<전체 기사 읽기>**

드 재러드 윌슨이 발목 부상으로 빠지며 왼쪽 라인이 통째로 붕괴되는 악재도 겹쳤다.

그럼에도 메이는 안정적으로 공격을 운영해 4쿼터에 두 번의 필드골 찬스를 만들었고, 앤디 보레가레스가 19야드와 52야드 필드골을 모두 성공시키며 점수 차를 벌렸다. 벵갈스가 막판 20-23까지 추격했지만 추가 필드골로 점수를 벌린 뒤, 수비진이 마지막 드라이브를 저지하며 승리를 지켜냈다.

메이는 이날 35패스 중 22개를 성공시켜 294야드, 1패스TD, 1인터셉션을 기록했다. 헨리는 115야드로 팀내 최다 리시빙 야드를 올렸다.

패트리어츠는 다음 주 월요일 밤 홈에서 자이언츠와 맞붙는다.

hsb@bostonkorea.com



✠ 하느님에 대하여  
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턴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미 소비자, 블랙프라이데이 지출 삭감...2021년 이후 처음

### 땡스기빙 앞두고 위축된 심리 반영, 전반적으로 지출 삭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를 앞둔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예산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딜로이트가 미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올해 블랙프라이데이~사이버먼데이 기간 동안 평균 62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퍼센트 감소한 수치이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지출이 줄어드는 해다.

응답자들은 높은 생활비와 각종 금융적 제약을 우려하며 충동적 지출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딜로이트는 이러한 지출 감소가 소득 계층 전반에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 가구는 지출을 12퍼센트 줄이겠다고 답했고,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 소비자들도 지출을 18퍼센트 줄일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 〈주제 기사 읽기〉

그럼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올해 쇼핑 시즌에 참여할 계획이다. 보스톤 지역 응답자 400명 가운데 약 72퍼센트는 추수감사절 기간에 쇼핑할 것이라고 답했다.

딜로이트의 부회장이자 미국 유통·소비재 부문 리더인 나탈리 마르티니는 “지출 축소가 예상되는 한편,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과 매장에서의 경험을 결합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아 추수감사절 기간 전반에 걸쳐 높은 참여율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하지만 블랙프라이데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새벽 5시에 줄을 서는 ‘특별한 하루’ 의 모습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블랙프라이데이 훨씬 이전부터 쇼핑을 시작하고, 이커머스나 AI 챗봇 쇼핑 등 다양한 채널을 병행하면서 블랙프라이데이는 연말 쇼핑 시즌 전체와 자연스럽게 섞여 버렸다.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퍼센트는



온라인 쇼핑을, 40퍼센트는 매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소매업체들은 이제 다음 핵심 고객층으로 Z세대를 주목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Z세대(1995~2006년생)가 올해 연말 쇼핑 시즌 지출 100달러 중 20달러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5년 전 4달러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다. 설문조사에서는 Z세대의 오프라인 매장 선호도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 응답자의 72퍼센트는 블랙프라이데이에 매장을 직접 방문해 쇼핑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딜로이트 소비자 전략 부문의 브라이언 맥카시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올해 지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Z세대의 소비 파워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고 강조했다.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

# 반짝이는 트리와 함께 펼쳐지는 보스톤의 홀리데이 마켓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스톤 커먼의 트리 라이팅 행사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도시 전체가 따뜻한 빛과 설렘으로 가득한 본격적인 홀리데이 시즌에 돌입했다. 트리가 밝게 빛나기 시작하면, 보스톤 곳곳에서 다양한 홀리데이 마켓들이 활기를 띠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로컬 장인들의 수공예품부터 신선한 농산물과 특별한 시즌 한정 푸드까지, 개성 가득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잊지 못할 겨울 쇼핑 경험을 즐길 수 있다.

보스톤의 홀리데이 마켓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모이는 축제의 장이다. 각 마켓마다 독특한 콘셉트와 매력을 가지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라이브 음악, 특별 칵테일,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홀리데이 시즌의 즐거움을 더한다.

올해는 세 곳의 대표적인 홀리데이 마켓이 보스톤 전역에서 운영되며 각기 다른 매력으로 방문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다운타운의 전통적인 분위기부터 워터프론트의 현대적인 감각까지, 보스톤의 홀리데이 마켓들은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보스톤 퍼블릭 마켓 홀리데이 쇼핑 마켓 (Holiday Shopping Market at Boston Public Market)**

보스톤 퍼블릭 마켓은 연중 상설 벤더들과 함께 시즌별 로컬 팝업 벤더들을 맞이하는 쇼핑 마켓을 운영한다. 다운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이곳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생산된 수공예품과 특산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윈스톱 쇼핑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홀리데이 쇼핑 마켓은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독특한 선물 아이템, 신선한 계절 식재료, 케이터링 옵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에서 생산된 수제 제품들



과 특별한 먹거리들을 쇼핑하며 로컬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다.

날짜: 2025년 11월 28일 - 12월 21일 시간: 금요일-일요일 (뽕스기빙이후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주소: Boston Public Market, 100 Hanover St, Boston, MA 02108 웹사이트: <https://bostonpublicmarket.org/visit/seasonal/>

**소와 윈터 페스티벌 (SoWa Winter Festival)**

올해 8회를 맞이한 소와 윈터 페스티벌이 역사적인 파워 스테이션으로 돌아왔다. 사우스엔드의 예술 지구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100명 이상의 지역 메이커, 아티스트, 디자이너, 스페셜티 푸드 벤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실내 홀리데이 마켓이다.

따뜻하고 화려하게 꾸며진 실내 공간에서 수제 예술품과 홀리데이 선물, 스페셜티 음식과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D's Keys의 듀얼링 피아노 라이브 공연이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게스트 바텐더들이 만드는 특별 칵테일과 푸드 트럭 바자가 방문객

들을 기다린다. 입장료는 10달러이며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다. 현장 주차도 10달러에 이용할 수 있다.

날짜: 2025년 11월 28일 - 12월 28일 시간: 화-목 오후 4시-8시, 금 오후 4시-9시, 토 오전 10시-오후 9시, 일 오전 10시-오후 7시 (월요일 휴무,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휴무) 주소: SoWa Power Station, 550 Harrison Ave, Boston, MA 02118 웹사이트: <https://www.sowaboston.com/sowa-winter-festival/>

**스노포트 홀리데이 마켓 (The Holiday Market at Snowport)**

보스톤 워터프론트가 스노포트로 변신하며 로컬 비즈니스와 홀리데이 정신이 만나는 즐거운 겨울 마을을 선보인다. 시포트 커먼에서 열리는 이 마켓은 125명 이상의 메이커들과 풍성한 음식, 맞춤 칵테일 바, 축제 장식, 라이브 음악 등을 갖춘 보스톤에서 가장 현대적인 홀리데이 경험을 제공한다.

젯블루가 제공하는 히팅된 워밍 텐트에서는

맥주 거든 스타일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징글 바, 디지 트레이들, 베티스 바, 블리자드 바 등 네 개의 테마 바에서 투스칸 키친이 만드는 특별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레고 그룹의 크래프팅 코너에서는 눈사람 키트 만들기 등 매일 드롭인 크래프트 활동이 진행되며, 아이 스리스 컬링 레인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평일 입장은 무료이며, 주말에는 시포트 인사이더 앱을 통한 시간예약제로 운영된다.

날짜: 2025년 11월 7일 - 12월 28일 시간: 월-목 오후 3시-8시, 금-토 오전 11시-오후 9시, 일 오전 11시-오후 8시

/12월 8일-28일 연장 운영: 월-목 오전 11시-오후 8시, 금-토 오전 11시-오후 9시, 일 오전 11시-오후 8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휴무) 주소: Seaport Common, 100 Seaport Boulevard, Boston Seaport, MA 웹사이트: <https://www.bostonseaport.xyz/holidaymarket>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PGA**

617.458.2733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핸디맨 앤디**

HAN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mailto: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http://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매년 7월  
장소: 보스톤  
문의: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mailto: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간판 및 사인**

초이스 간판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mailto:choisigns@yahoo.com)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문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boston@hanmail.net

# '트루시니스(Truthiness)' 시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클릭 한 번이면 뉴스가 쏟아지고, 알릴 한 번이면 누군가의 의견이 내 생각 속으로 흘러들어온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방대한 정보의 시대에 오히려 사실이 약해지고 감정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미국의 코미디언, 방송 진행자이자 작가, 배우인 스티븐 콜베어 그는 특히 '풍자(satir)'와 정치, 사회 이슈를 유머로 풀어내는 캐릭터로 유명한 그가 던진 신조어, '트루시니스(Truthiness)'이다.

2025년 '올해의 단어 선정' (메리엄-웹스터)에 '트루시니스'가 올랐다. 진짜 진실은 아니지만 진실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확증 편향이 주는 자기 만족에 속아 넘어가 잘못된 뉴스를 더 믿게 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알고리즘으로 원하는 정보에 갇히는 현상 심화, 확증 편향이 더 강화됨을 말한다. 트루시니스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참이라고 믿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실보다 '내가 느끼는 진실'이 더

중요해지는 현상이다. 논리보다 직관, 데이터보다 확신, 근거보다 감정이 앞서는 태도라 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풍자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의 사회를 정확히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정치적 주장도, 사회적 논쟁도, 심지어 개인적 판단조차도 팩트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굴러간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을 강화하고, 확증편향은 낯선 정보보다 익숙한 정보를 선택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진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간다.

트루시니스의 무서움은 그것이 거짓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숫자보다 느낌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연구 결과보다 '내 주변 사람들의 경험'이 더 현실적이며,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믿음이 더 달콤하다. 이렇게 형성된 확신은 설득이나 논쟁을 통해 쉽게 수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정체성과 연결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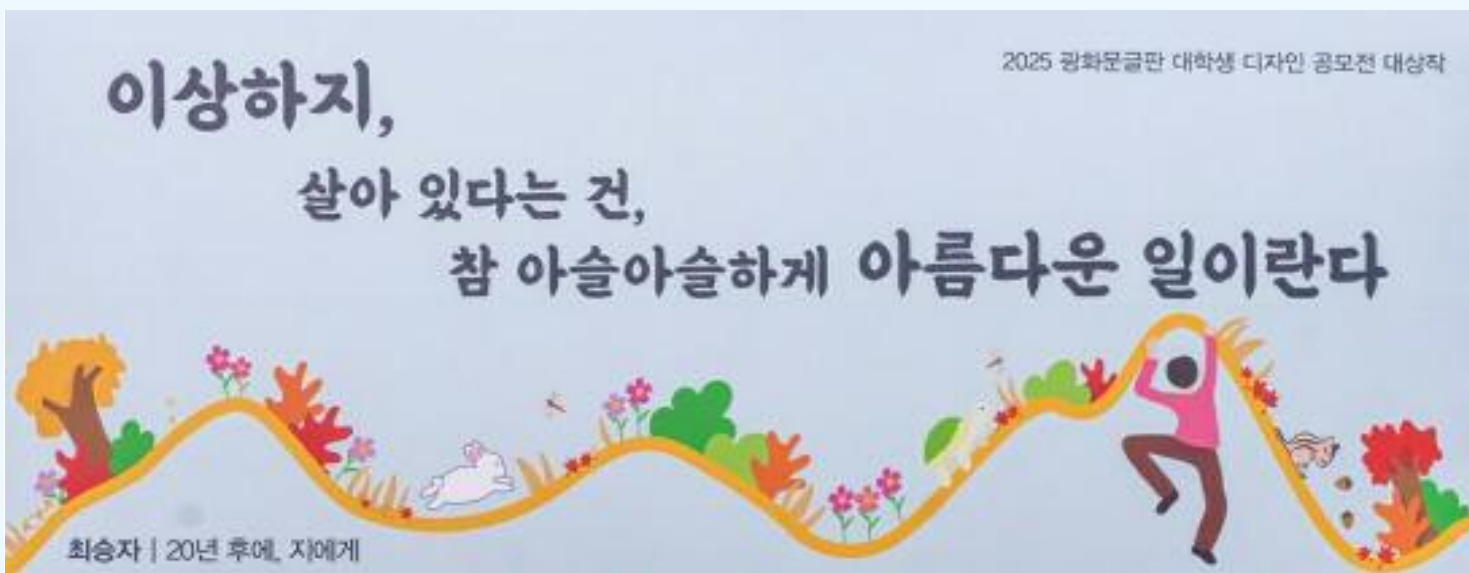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귀결된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믿고 있는가? 자료인가, 감정인가? 검증인가, 확신인가? 사실인가, 혹은 '그럴 것 같은 느낌'인가?

진실은 때때로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실에 이를 수 있다. 트루시니스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만,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 사실 차갑지만, 그 차가움이 우리를 맑게 한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더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믿는지를 점검하는 능력일지 모른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사실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느낌에서 온 것인가? 차이는 미세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

트루시니스가 사회를 설명하는 언어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영향이 신앙과 진리, 그리고 리더십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트루시니스는 단순한 정보 해석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따르고 누구를 신뢰하는가라는

깊은 차원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많은 리더들은 확신을 가진 사람을 강한 리더로 착각한다. 하지만 확신은 언제나 리더십의 증거가 아니다. 트루시니형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느끼기에 이것이 맞다.", "사람이 원하니까 이것이 진실이다.", "우리가 믿는 것이 곧 사실이다."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결론은, 신앙은 위안을 넘어 진리의 견고함을 회복해야 하고, 진리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정직한 성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기초에는 한 가지 질문이 놓여 있다. 진리가 기반인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듣기 불편한 소리도 포함해야 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말이다. 트루시니스는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지만, 신앙, 진리, 리더십은 우리를 변하게 하며 변화시킨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 광화문출판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대상작

## 한담객설閑談客說: 서른 살 즈음에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어느새 추수감사절도 지나간다. 곧 연말인데, 크리스마스도 곧 다가 올것이다. 이 졸문은 지난 초가을에 적었던 글이다.

늦은 가을이다. 해마다 이맘때 즈음이면 가을을 보내며 겨울을 준비한다. 가을은 즐겁게 왔다가 슬그머니 가버리는 거다. 한해도 거론적이지 않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젠 단풍도 시들어 낙엽되어 떨어졌다. 계절의 변화는 아슬아슬하게 아름답다.

광화문광장엔 글판이 걸렸다.

"이상하지, 살아 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최승자, '20년 후에, 지(芝)에게' 중에서)

삶이 힘들어도 아름다운 일이라 했다. 또한 서로 응원하며 살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이들은 생을 찬양하는 시는 아니라 했다. 오히려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어린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했던가. 글씨 나는 그렇게 읽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론가들이 하는 말일테니 그대로 믿기로 한다. 절망적인 삶이라 하는데, 생이 아름답다니?

절망적인 삶일 적엔 한국연속극 "도깨비" 대사 한토막이 생각난다. (몇주전에 연속극 대사를 운운했는데, 다시 들먹인다.) 희망없는 여주인공인 소녀가 말한다. '일찌기 조실부모부失父母하고 사고무탁四顧無託.. 신과조 연극대사 같기도 하다만 오히려 감칠맛난다. 하긴 소녀는 이모와 이종사촌들에게 구박받고 있으니 백설공주 근처를 얼씬거린다.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밝고 명랑하며 푹푹하다.

가을엔 최승자시인의 다른 시가 그럴듯하다. 제목이 가을 중에서이다.

세월만 가라, 가라 그랬죠. 그런데 세월이 내게 왔습니다. 내 문간에 낙엽 한 잎 떨어 떨어입니다. 가을입니다. (최승자, 가을 중에서)

연속극 도깨비는 해피엔딩이다. 소녀가 도깨비와 재회할 땐 29살이었다. 다시 최승자시인이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 서른살을 먹게될 독자들에게 축하인사를 보낸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요한복음 9:30)



2025 제 21회 뉴잉글랜드지역

# 어린이 동요 합창제

장소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30 Wheeler Rd., Newton MA

## [행사 순서]

- 1:30-2:30 동해독도 공모전 시상식
- 2:00 동요 합창제 참가팀 접수
- 2:30 동요 합창제 시작
- 3:30 동요 합창제 심사 집계
- 4:15 동요 합창제 시상식



## [합창제 순서]

- |                         |       |          |
|-------------------------|-------|----------|
| * 축하공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동백꽃} | ----- | 우리 한글    |
| 내슈아 한마음 한글학교 {쌍한마음즈}    | ----- | 산토끼 메들리  |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무궁화}        | ----- | 까꿍 놀이    |
|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두근두근}     | ----- | 도레미 송    |
| 보스톤 한국학교 {몽당연필 합창단}     | ----- | 아름다운 세상  |
| 우스터 한국학교 {우스터 한국학교 합창단} | ----- | 소원 향아리   |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소나무}        | ----- | 앞으로      |
|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반짝반짝}     | ----- | 행복송      |
| 보스톤 장로교회 한국학교 {도담 누리}   | ----- | 왜 이렇게 덥지 |
| 푸르외 한국문화학교 {푸르외}        | ----- | 아리랑      |
| * 축하공연 메인 한글학교 {희망 등불}  | ----- | 종소리 울려라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연례 동요 합창제는 NE지역 한국학교들이 상호 교류 및 선의의 경연을 통한 한국정서 및 문화 배우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 관련 및 후원 문의 : [kosane2025@gmail.com](mailto:kosane2025@gmail.com)

주최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후원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교장단 및 이사회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넘어질 때 무심코 짚은 손목이 골절, 다른 부위 골절 가능성 급증



손목 골절의 경험이 있다면 10년 이내 척추 및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50세 이상에서는 손목 골절이 발생하면 골밀도 검사가 필수이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홍 경호 상지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여성은 35세 이후부터 서서히 뼈가 약해지는데, 폐경 이후 5~10년 동안 뼈 손실 속도가 가장 가파르다. 폐경이 되면 뼈를 흡수하는 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폐경 직후 골다공증 위험은 크게 증가하며 척추 압박골절과 손목, 고관절 골절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발생한다.

나이가 들면 균형감각이 저하되고, 근력도 감소하며 쉽게 넘어지기 쉽다. 낙상은 단순히 외상이 아니라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령층에서는 낙상 시 반사적

으로 손을 뻗어 땅을 짚다가 손목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다.

골다공증 환자가 한번 골절을 겪으면 이후 다른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2~5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반대편 고관절이나 손목, 척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골다공증은 뼈 자체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가 골절되면 그 외 부위도 쉽게 손상된다.

경미한 손목 골절은 향후 척추나 고관절 등 큰 골절의 예고 신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손목 골절은 대개 적은 충격으로도 잘 발생하는데 이는 뼈가 약해져 있다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손목 골절 환자는 실제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이미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연구에 따르면 손목 골절을 겪은 여성은 이후 척추골절이나 고관절골절 위험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손목 골절이 첫 골절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 그 후 10년 이내 척추,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도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홍경호 상지센터장은 "손목 골절은 국소적 외상보다는 전신적인 골밀도 저하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50세 이상에서 손목 골절이 발생하면 반드시 골밀도 검사 및 골다공증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손목 골절은 척추나 고관절 골절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예측 인자이며, 이를 단순 골절로 넘기지 않고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로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경호 상지센터장은 "40세 이전 조기 폐경, 부모의 고관절 골절, 저체중, 과음 등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높인다. 폐경기 여성은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해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전선, 문턱 등 집안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을 강

화해 신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수면제 등 약물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복용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넘어질 때 무심코 짚은 손목이 골절, 다른 부위 골절 가능성 '급증' "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재외동포청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 2025 YOUNG LEADERS SYMPOSIUM

PARENTS | CAREGIVERS STUDENTS

Join experts to hear their experiences, insights, and feats. The panel will explore pursuing a career in law, impact of bullying & hazing on a child's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Stay on the right side of the law.

## Distinguished Panel



DA Marian Ryan  
Middlesex County  
District Attorney



Mia Yeung  
LMHC, LMFT  
Chair, KACL-NE



Sam Kim  
Lt. US Navy  
Chaplain



Esther Kim  
Law Student  
3:03 Prosecutor

## Key Discussions & Insights (Symposium is FREE)

- ✔ Bullying & Hazing
- ✔ Depression & Mental Health
- ✔ Underage Drinking or DUI
- ✔ Career in Public Service

RSVP: [Newenglandkacl@gmail.com](mailto:Newenglandkacl@gmail.com)  
Lexington Elks Club  
959 Waltham St., Lexington, MA



**20 December 2025 at 5- 7 PM**

Fundraiser to follow at 7 pm.  
Student Ticket price \$50.



More information  
617-299-0294



Visit our website  
[kacl-ne.org](http://kacl-ne.org)

# BostonKorea.com 광고와 함께 확실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law@lookjs.com

## 백영주 부동산

617.921.6979  
clarapaik@gmail.com

## 나무 건축

617.775.4771  
info@namuma.com

##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최은경 부동산

781.690.4389  
Chris.choi@compass.com

## 캠브리지 한인교회

15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 보스톤 그레이스 비전 한인 교회

910.670.4858  
info@gracevisionumc.org

## 성요한 교회

781.861.7799  
stjohns2600@hotmail.com

##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info@songkkimlaw.com

## 수잔 리 부동산

339.224.1512  
susan@prorealty.group

## 켈리 김 모기지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 Grace Kim 보험

978.800.3467  
grace.kim@ebshealth.us

**Hmart**  
hmart.com